DBpia

원효 『이장의』 현료문에 나타난 업(業)과 연기(緣起)고찰

A Study on Karma and Pratityasamutpāda in the Exoteric Level of Wonhyo's 『Ijangŭi』

저자 (Authors)
고은진
Ko, Eun-Jin

출처 (Source)
철학논총 106, 2021.10, 27-50 (24 pages)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106, 2021.10, 27-50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새한철학회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63705

APA Style
고은진 (2021). 원효 『이장의』 현료문에 나타난 업(業)과 연기(緣起)고찰. 철학논총, 106, 27-50.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1/24 13:1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새한철학회논문집
철학논총 제106집 · 2021 · 제4권
http://dx.doi.org/10.20433/jnkpa.2021.10.27

원효『이장의』현료문에 나타난 업(業)과 연기(緣起)고찰

고은진 (제주대) *

[한글 요약]

『이장의』는 번뇌를 다룬 원효의 저작으로 1949년 일본에서 고서본이 발견된 이래 최근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횡초혜일이 원효『이장의』의 핵심 사상에 대해 유가론과 기신론계의 종합이라 평가한 이후, 이에 대해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나 이 논문에서는 유식으로 본다.

업(業)과 십이연기(十二緣起)는 초기불교부터 있었던 불교의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연기의 의미와 구조는 새롭게 재편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초기불교와 설일체유부에서 주장하는 십이연기의 삼세양중인과(三世兩中因果)는 유식에 와서 이세일중인과(二世一重因果)로 변모한 것이 그것이다.

원효『이장의』현료문에서는『유가사지론』을 바탕으로 업(業)의 발현과 생(生)의 맺음에 대해 논한다. 즉 십이연기의 주체인 무명(無明)과 애(愛)와 취(取)는 명언(名言) 종자를 중심으로 발업(發業), 결생(結生)하여 이생인과(二生因果) 한다. 이러한『이장의』의 설명은 유식의 아뢰야식이 종자설을 기본으로 연기하며 번뇌장이 아집(我執), 소지장이 법집(法執)과 관계하고 있음을 밝힌다.

번뇌장은 아공(我空)을 모르는 데서 오는 집착의 번뇌로 아집을 형성하여 해탈을 장애한다. 소지장은 법공(法空)을 모르는 데서 오는 집착의 번뇌로 법집을 형성하여 보리를 장애한다. 유식으로 보자면 번뇌장은 제6의식과 제7말나식의 작용과 관계하고, 소지장은 제7말나식과 제8아뢰야식과 관계한다. 결국 이장은 제7말나식의 역할이 지대하다 볼 수 있다.

원효는 한국 대승 불교의 새벽을 연 사상가이자 실천가이다. 그가 쓴『이장의』는 현상을 드러낸 현료문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유(有)를 중시한 유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존재의 형성을 드러내는 발업과 결생에 대한 원효의 설명은 자아와 세계가 제8아뢰야식의 식소변이자, 의타기를 의타기로 아는 것이 원성실성이라는 유가행파의 기본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원효가 중생심을 강조한 대승의 승려였음을 볼 때 현료문을 중시한 원효의 대표적 핵심사상은 유식에 있다 하겠다.

주제분야 : 불교철학, 유식학, 대승불교
주 제 어 : 원효, 이장의, 연기, 유식, 대승

* 제주대학교 철학과 강사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Ⅰ. 머리말

원효는 한국 불교의 새벽이라 불릴 만큼 해동 불교 성립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 사상사에 있어 큰 영향과 업적을 남긴 사상가이자 실천가이다. 원효는 206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통해 불교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신라를 대승불교로 이끌었다. 그 저술 중에서 『이장의』는 『대승기신론소』와 『별기』, 『금강삼매경론』과 함께 가장 걸출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1948년에서야 완본의 형태를 지닌 원본이 발견되어 그 존재가 확인된 원효의 『이장의』는 일체의 번뇌를 하나의 체계로 종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장의』는 완본의 형태를 지닌 만큼 학문적 가치가 높지만, 그동안 판본 자체에 대한 연구와 고사본 자체가 필사의 과정에서 보이는 오자(誤字)와 누락된 글자들로 인하여 내용 자체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원효는 『이장의』에서 열반과 해탈을 방해하는 두 가지 번뇌에 대해 다룬다. 그 두 가지 번뇌란 현료문 차원의 번뇌장과 소지장이고, 은밀문 차원의 번뇌애와 지애이다. 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현료문 차원의 것으로 번뇌장은 탐(貪), 진(瞋) 등의 미혹으로 괴롭히고 수고롭게 함을 일으키고, 소지장은 일체 존재의 근본적 진여성인 여소유성(如所有性)과 현상적 차이성인 진소유성(盡所有性)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를 가리킨다. 주로 감추어진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는 은

1) 횡초혜일은 1949년 「元曉の二障義について」에서 발표 경로 및 『이장의』의 대략적인 내용을 다루고, 1979년 平樂寺書店에서 『新羅 元曉撰 二障義』를 간행하여 『이장의』 연구의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에서 2010년 이전 『이장의』를 연구한 학자들로는 은정희, 이평래, 오형근, 박해당, 기덕철, 유승주, 유진스님 등이 있다. 최근 김수정은 「원효의 『이장의』성립 배경에 대한 일고찰」에서 소지장과 은밀문을 심층 분석하여 『이장의』의 전체구도는 구유식 특히 혜원의 『대승의장』, 「이장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원효의 『이장의』 내의 은밀문과 현료문에서 설하는 각각의 識說과 소지장 및 智碍는 신유식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최연식은 논문 「元曉 『二障義』 隱密門의 사상적 특징」에서 원효의 『이장의』의 은밀문은 구유식의 영향이 아니라 『기신론』 자체에 의거하여 원효가 독자적으로 체계화 하였다고 주장한다. 석길암은「元曉 『二障義』의 思想史的 考察」에서 『이장의』는 사상적으로 기신론계 입장을 그 중심에 두고 유식계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성립된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그는「元曉『二障義』における 隱密門の形成に 関する 再検討」에서 『이장의』의 번뇌 이론은 혜원 등의 구유식의 영향이 아니라 『기신론』 자체에 의거하여 원효가 독자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반론하였다. 그 근거로 그는 혜원을 비롯한 구유식학자들과 원효의 심식설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조수동은 「煩惱·所知 二障과 팔식설」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장의』에 대해 번뇌장과 소지장을 팔식설로 이해하여 제7말나식에 의해 주로 번뇌가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김성철 또한 「원효의 제7말나식관」에서 제7말나식을 유가학파가 창안한 새로운 식으로 규정하고, 법장과 달리 원효가 『기신론』을 주석하면서, 그 심식설을 현장계 유가행파의 8식설로 해설하고 있음을 논하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밀문 차원의 번뇌애는 6종 염심(染心)이 진여의 평등성에 위배되어 갖가지 념을 형성하고, 지애는 근본무명이 진여성을 미혹하여 세속지 얻음을 장애한다. 2)

석가모니가 무아(無我)를 설한 것에 기반하여 볼 때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와 존재는 실체를 지닌 객관 사물이 아니라 인(因)과 연(緣)의 만남으로 형성된 연기(緣起)의 산물이다. 무시이래(無始以來) 중생들의 업(業)은 인(因)이 되어 적절한 연(緣)인 조건을 만나 존재를 형성한다. 다시 말하면 우주의 일체 현상은 중생들의 업인(業因)이 육도(六道)를 전전하며 연기한 과(果)이다. 이처럼 업은 중생에게 있어 다음 생을 결정하게 하는 원인으로 연기하면서 끊임없는 생(生)을 가져오게 한다. 즉 중생의 업은 우주 존재를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자 번뇌의 원인이다.

원효『이장의』에서는 존재와 번뇌로 작용하는 이와 같은 중생업의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에 대해 현료문과 은밀문으로 나누어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현료문에서 다루고 있는 번뇌장의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은 중생업이 십이연기, 아뢰야연기를 바탕으로 존재와 자아를 형성, 열반과 해탈을 장애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원효『이장의』현료문의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을 고찰하여 십이연기와 아뢰야 연기를 비교한 후 원효의 핵심사상에 접근하고자 한다.『이장의』연구자들은『이장의』가 중관과 유식의 융합, 혹은 유식과 여래장의 융합, 혹은 유식에 기반한 저서라고 주장한다. 3) 이 논문에서는『이장의』현료문이 유식을

---

2) 원효,『이장의』, 한불전, 789c8-c20, 참조 : 言二鄣者 一煩惱鄣亦名惑鄣 二所知鄣亦名智鄣 或有異門 名煩惱碍及與智碍 煩惱鄣者 貪瞋等惑煩勞爲性 適起現行 惱亂身心 故名煩惱 此當體從功能立名 又復能惑界內 煩惱之報 逼惱有情 令離寂靜 故名煩惱 是爲因中說果名也 鄣以遮止爲義 亦用覆弊爲功 遮止有情不出生死 覆弊理性不顯涅槃 由是二義故名爲鄣 此從義用而受名也 所知鄣者 盡所有性 如所有性 二智所照故名所知法執等惑遮止智性 不成現觀 覆弊境性 不現觀心 由是義故名所知鄣.

3) 횡초혜일은『이장의』가 신역계의 유가론 중심의 단혹설과 구역계의 기신론 중심의 단혹설을 종합 조직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평래는「煩惱所知二障과 人法二無我의 基礎的 硏究」에서『이장의』의 주요 용어인 번뇌·소지의 이장과 인법이무아는 유가유식학파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형근은「원효의 이장의에 대한 고찰」에서 횡초혜일이 주장한 것처럼『이장의』를 유가계와 기신계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유가론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해당은「원효의 장애이론」에서『대승기신론』과『이장의』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원효가 장애를 인집에 의한 번뇌장과 법집에 의한 소지장으로 나누는 것은 유식의 아뢰야 연기설에 바탕한 장애이론이라 보고 있다. 기덕철 또한「煩惱障과 所知障에 對한 小考」에서 현료문은 유식법상종의 설을 종합하고 있고, 은밀문에서는 기신론을 중심으로 교의를 조직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유승주는「원효의 유식사상 연구」에서 원효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유식 사상으로 파악하였다. 유진 스님은『번뇌장·소지장의 연구』에서 근본 불교로부터 유식학에 이르는 심체설과 심식설을 검토하고 원효의『이장의』가 유식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수정은「원효의『이장의』성립 배경에 대한 일고찰」에서 소지장과 은밀문을 심층 분석하여『이장의』의 전체구도는 구유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기반으로 씌여졌다고 보고, 이것이 원효의 근본 사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이장의』현료문의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에 대한 원효의 설명이 기본적으로는 십이연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식(識)의 윤회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장의』현료문의 번뇌장은 아공(我空)을 모르는데서 오는 집착인 아집의 번뇌로 아공(我空)을 깨달아 아집(我執)을 끊으면 번뇌장을 벗어나고, 소지장은 아는 지혜의 성품과 알아차릴 대상의 성품이 가려져 법공(法空)을 모르는데서 오는 법집(法執)의 번뇌로 법공을 깨달아 법집(法執)을 끊으면 소지장을 벗어난다. 원효『이장의』에서의 강조점은 바로 이 현료문에 있다. 드러난 현상인 유(有)에 집중하는 유식(唯識)은 아뢰야식의 의타기(依他起)를 의타기(依他起)로 아는 것이 이장의 극복이자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여실하게 아는 원효의 대승 사상과 만난다. 원효는 해탈하여 열반에 드는 부처이기 보다는 중생계에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추구하였다. 이 점에서『이장의』의 핵심 사상은 현료문을 강조하는 유식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불교의 핵심 개념인 업(業)과 십이연기(十二緣起)가 유식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 변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양상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유식과 십이연기

업(Kamma)이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의도적 행위가 과보로 이어진 것을 말한다. 의도적 행위는 마치 씨앗이 적절한 흙과 습기를 만나 발아해서 그 종자에 고유한 열매가 열리듯이 그 의도에 따라 중생은 몸으로 짓는 신업(身業), 말로 짓는 구업(口業), 마음으로 짓는 의업(意業)을 지어 그 업력에 따라 육도에 윤회하여 연기한다. 이렇듯 업은 그 과보로 존재를 형성하고 존재는 다시 업을 지어 윤회하게 한다.

발생, 근원을 뜻하며 명확히는 조건 발생이라는 의미를 지닌 연기(緣起)는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samutpāda(起)이며, 조건의 화합을 조건해서 pratītya(緣) 일어난다고 하여 pratītya-samutpāda라 한다. 석가의 대표적 가르침인 십이연기는 윤회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 구조를 밝힌다.

식 특히 혜원의『대승의장』,「이장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원효의『이장의』내의 은밀문과 현료문에서 설하는 각각의 識說과 소지장 및 智碍는 신유식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성립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 무명을 조건으로 의지(行)가, 의지를 조건으로 알음알이(識)가, 알음알이를 조건으로 정신(名)·물질(色)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六入)가,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접촉(觸)이,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受)이,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愛)가,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取)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有)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生)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죽음(老死)과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절망이 발생한다. 4)

초기 불교에서 십이 연기는 전생·금생·내생의 삼세에 걸쳐서 원인과 결과가 두 번 반복하여 삼세양중인과로 이어진다. 즉 무명(無明)·행(行)은 전생을 이루고, 식(識)·명색(名色)·육입(六入)·촉(觸)·수(受)·애(愛)·취(取)·유(有)는 금생(今生)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生)과 노사(老死)는 내생(來生)을 나타낸다. 특히 설일체유부에서는 외부대상의 존재를 믿었기에 실체로서의 법이 인과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삼세에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 데에 중점을 두어 무명(無明)과 행(行)·식(識)은 명색(名色), 육입(六入), 촉(觸), 수(受), 애(愛), 취(取), 유(有)와 세(世)를 달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식 사상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성유식론』에서는 십이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십이지는 간략히 네 가지에 포섭된다. 첫째는 능인지(能引支)이니, 무명(無明)과 행(行)을 말한다. 능히 식(識) 등의 다섯 가지 과(果)(식(識), 명색(名色), 육처(六處), 촉(觸), 수(受))의 종자를 이끌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무명(無明)은 오직 능히 다음 생(生)을 불러오는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을 일으키는 것만 취한다. 곧 이것이 일으킨 것을 행(行)이라 이름한다. 이로 말미암아 일체의 순현보로 받은 업(業)이 별도로 미래의 업(業)을 돕는 것은 모두 이 행(行)의 지분(支分)이 아니다. 5)

『성유식론』에서는 무명(無明)과 행(行)이 세(世)를 바꾸지 않고 뒤의 다섯 가지 과(果)를 이끈다. 12지중 무명(無明)은 업(業)을 일으키는 가장 큰 미혹으로 작용하고 행(行)은 무명에 의해 일으켜진다 그렇다면 초기불교에서 전생의 행(行)은 어떻게 하여 현생의 식(識)을 형성하는가? 니까야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다. 다만 식(識)은 행(行)을 의지하여 출현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유식에 와서 행(行)을 연하여 식(識)이 된다는 것은 행(行)이 식(識)을 훈습하거나 식(識) 안에 종자(種子)를 남긴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습기(習氣)를

---

4)『쌍윳따니까야』 연기경, 12:1, 초기불전연구원

5) 현장 역,『성유식론』 8권(『대정장』 31권), 43c : 十二支略攝爲四. 一能引支. 謂無明行. 能引識等五果種故. 此中無明唯取能發正感後世善惡業者. 卽彼所發乃名爲行. 由此一切順現受業別助當業皆非行支.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받아들이는 이전 단계의 식(識)이 습기(習氣)와 함께 상속함으로써 명색(名色)으로 시작하는 다음 단계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유식에서 식(識)이 현재가 아니라 잠재식으로서 함장된 상태이기에 무명(無明)과 행(行)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성유식론』에 따르면 12지 중 무명(無明)은 업(業)을 일으키는 미혹으로 중생(報)을 이끌어오기에'보(報)를 이끄는 업'인 인업(引業)을 일으켜 번뇌를 일으킨다. 무명(無明)이 인업(引業)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명(無明)으로 인해 삼계(三界)안에 6취 중생 중 하나로 태어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무명(無明)에서 발(發)한 업(業)은 행(行)에서 인업(引業)으로 작용하여 생업(生業)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행(行)은 식(識)으로 다시 식(識)은 명색(名色), 육입처(六入處), 촉(觸), 수(受)로 이어져 애(愛)가 발생한다.

이 때 애(愛)와 취(取)는 발생업(發生業)이 되고, 이에 이르러 비로소 존재인 유(有)가 생업(生業)이 된다. 이처럼 유식에서는 무명(無明)과 이어진 유(有)를 원인으로 하여 결과인 생(生)과 노사(老死)가 이중(二重)으로 이어진다. 즉 업을 발생하는 종자업(種子業)의 결과로 유(有)를 이루어 생(生), 노사(老死)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 무명(無明)과 행(行)은 다음의 식(識), 명색(名色), 육처(六處), 촉(觸), 수(受)의 종자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은 업(業)을 능히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기에 능인지(能引支)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유식론』의 설명은 『유가사지론』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유가론』의 설과 같기 때문이다. "12지 중 둘(行・有)은 업에 속하고 셋(無明・愛・取)은 번뇌에 속한다. 또 2업 중 처음(行)은 인업이고, 뒤(有)는 생업이다. 3번뇌 중 하나(無明)는 인업을 능히 일으키고 둘(愛・取)은 생업을 능히 일으킨다." 6)

이 설명에 따르면 무명(無明)은 직접적으로 업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이끈다. 그러나 애(愛)와 취(取)는 업을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애(愛), 취(取) 이전의 명색(名色), 육입처(六入處), 수(受)는 잠재된 상태이지 현행된 것이 아니다. 시간상으로는 본다면 전생이나 과거이지 현재가 아니다.

그러나 설일체유부에서는 전생의 무명(無明)과 행(行)은 식(識)으로 연결되어 현재의 명색(名色), 육입처(六入處), 수(受), 애(愛), 취(取), 유(有)를 가져오기 때문에 삼세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이 성립한다. 설일체유부의 이러한 십이연기

6) 원효, 『이장의』, 한불전, 795b : 如『瑜伽』說, "十二支中, 二業所攝, 三煩惱攝. 又二業中, 初是引業, 後是生業. 三煩惱中, 一能發起引業, 二能發起生業."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의 해석은 실체로서의 법이 인과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삼세에 작용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기에 무명(無明)과 행(行)이 식(識)으로 연결되어 세(世)를 달리한다.

반면 유식의 십이연기는 식(識) 속에 존재하는 종자(種子)가 현재 어떻게 현행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주안점이 있기에 여덟 가지 식은 위의 열 개의 지(支) 가운데 식지(識支)를 제외한 다른 지(支)들과 상응하여 일어난다. 즉 무명(無明)에서 유(有) 이전까지는 유(有)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태가 된다. 그래서 아뢰야식의 전변과 훈습을 통해 생긴 업종자(業種子)에 의해 유(有)는 다음 세상에서 다시 생(生)과 노사(老死)를 받게 된다. 이처럼 유식에서는 이세일중인과(二世一重因果)를 주장한다. 즉 무명(無明)에서 유(有)까지의 10지(支)는 함께 생겨나고 소멸하면서 훈습을 통해 종자를 낳기 때문에 세(世)를 달리 하면 안되는 것이다. 7)

이처럼 유식의 연기설에는 설일체유부에서 현재라고 보는 명색(名色), 육입(六入), 수(受), 애(愛), 취(取)마저 가상(假相)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종자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유식은 이 가상의 드러남과 드러나지 않음보다 가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초점을 두어 업(業)의 다른 표현인 종자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려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유식의 식(識)과 종자(種子)는 어떤 관계이며 이 종자는 십이연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드러난 현상을 강조하는『이장의』현료문에는 이러한 유식의 십이연기로 발업과 결생에 대해 논하고 있다.

Ⅲ. 번뇌장의 십이연기

원효는『이장의』에서 먼저 현료문과 은밀문으로 나눈 후 현료문에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은밀문에 번뇌애와 지애로 나눈다. 원효는『이장의』번뇌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7) 십이연기는 어떻게 과거의 업에 의해 현재의 나의 몸(유근신)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몸이 어떻게 세계와 관계하며 다시 업을 쌓아 미래의 보를 낳게 하는지를 시간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반해, 아뢰야 연기는 개체적 유근신 안에서 다시 심층 마음인 아뢰야식을 발견하고는 그 심층 아뢰야식이 어떻게 매순간 표층 현상인 유근신과 기세간으로 변현하는지를 보여준다. 십이연기는 각각의 지가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각각의 지를 인(因)과 과(果)로 연결하면 이때 인과는 선후로 이어지는 이시적(異時的) 인과가 된다. 반면 아뢰야 연기는 아뢰야식의 전변활동과 그 활동결과의 식소변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때 인과는 동시적(同時的) 인과이다.『성유식론』, 2권, (『대정장』31, 66c-67a)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 번뇌장은 탐·진 등의 혹(惑)이니, 번거롭고 괴롭게 하는 것을 자성으로 삼는다. 이는 이제 막 현행하여 몸과 마음을 괴롭히고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번뇌'라고 이름한다.… 번뇌장은…유정을 막아 그치게 해서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리(理)의 성품을 덮어 가려서 열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소지장은…법집 등의 혹이 '지혜의 성품을 막아 그치게 해서 현관(現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경성(境性)을 덮어 가려서 '관하는 마음'(관심)이 나타나지 않게 한다. 8)

번뇌장은 인집(人執)의 미혹으로 신심을 괴롭히고 수고롭게 하여 리(理)의 성품을 가려 열반을 장애한다. 소지장은 법집의 미혹으로 지혜를 가려 현관(現觀)을 장애하여 세계를 그대로 관하는 마음을 장애한다. 원효는 모든 유정 중생이 본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나 두 가지 장애인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인해서 열반과 보리를 증득하지 못한다고 언급한다. 이 이장(二障)에 의해 중생은 본래 지닌 근본지와 후득지를 장애하여 부처에 이르지 못하고 육도윤회한다.

번뇌장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것은 인집(人執)이다. 인집은'나에게 아가 있다'는 아집(我執)이다. 내가 있다는 아집으로 인해 중생은 본래 지닌 지혜를 장애하여 열반을 가로 막는다. 반면 소지장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것은 법집(法執)이다. 법집(法執)은'세상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 법집(法執)으로 인하여 중생이 보리를 성취하지 못하고, 해탈을 장애한다. 아집(我執)에 의해 중생은 오온의 화합물인 자아가 무아(無我)임을 알지 못하고, 자아에 실체성을 부여한다. 법집(法執)은 무아(無我)를 인정하지만 오온의 부분적 요소는 실유(實有)한다고 보고 각각의 요소에 실체성(實體性)을 부여한다. 이러한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이 무시이래로 이어져 온 중생의 업(業)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집(我執)과 법집(法執)은 어떻게 업(業)과 연결되는가?

번뇌장을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과 연관시켜 논하자면 생각으로 짓는 의업(意業)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생각은 다시 말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번뇌장은 삼업(三業) 모두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러한 번뇌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이장의』에서는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으로 나누고, 다시 발업(發業)은 인업(引業)과 생업(生業)으로 나눈다.

> 현료문 중 번뇌장의 공능은 대략 2가지가 있으니, 능히 '업을 일으킴'(發業)과 능히 '생을 맺음'(結生)이다. 발업(發業)의 공능에도 역시 2가지가 있으니, 우선 '이

8) 원효,『이장의』, 한불전, 789c : 煩惱鄣者, 貪瞋等惑, 煩勞爲性, 適起現行, 惱亂身心, 故名煩惱. … 煩惱障者 … 遮止有情, 不出生死, 覆弊理性, 不顯涅槃 … 所知障者,… 法執等惑, 遮止智性, 不成現觀, 覆弊境性, 不現觀心.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끄는 업’(引業)을 일으킴과 이후 ‘생하는 업’(生業)을 일으킴이다. 전체적으로 논하면 일체 번뇌가 모두 인업(因業)을 일으키고 또 생업(生業)을 일으킨다. 그 중에서 별도로 가장 수승한 것을 취하면 무명(無明)은 인업(引業)을 능히 일으키고, 애(愛)와 취(取)는 생업(生業)을 능히 일으킨다. 9)

『이장의』 현료문 중 번뇌장은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을 하게 한다. 발업(發業)은 우선 업(業)을 이끈 후 업(業)을 생하게 한다. 업(業)을 이끄는 인업(引業)에는 중생이 지닌 총보(總報)의 과체(果體)를 강력하게 끌어 오는 견인업(牽引業), 보(報)를 총괄하는 총보업(總報業), 총보(總報)를 도와 개체를 완성시키는 업인 별보업(別報業)이 있다. 예를 들면 총보업(總報業)은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축생으로 태어나느냐를 결정짓는 업이다. 이 총보업(總報業)은 강력하게 작용하여 총보(總報)의 과(果)를 내면서 동시에 나머지 힘이 약한 업(業)을 도와 인간계에 태어난 자에 대해 수명, 빈부, 귀천 등 여러 차별로써 개체를 완성하게 하여 별보(別報)를 얻게 한다. 이러한 업(業)을 일으키는 데 가장 수승한 것은 무명(無明)이고, 애(愛)와 취(取)는 생업(生業)을 일으킨다. 『이장의』에서는 이 인업(引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세 가지 번뇌 중에 하나(無明)는 인업(引業)을 일으키고, 둘(愛, 取)은 생업(生業)을 일으키니 이 중 인업(引業)을 일으킨다는 것은 현기업(現起業)을 일으키는 것이다. 生業을 일으킨다는 것은 종자업(種子業)을 일으키는 것이니, 능히 선행종자를 훈습하여 일으킴으로써 생(生)을 이루어 전전하여 유(有)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10)

무명(無明)이 인업(引業)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명(無明)으로 인해 삼계(三界)안에 6취 중생 중 하나로 태어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무명(無明)이 보(報)인 중생을 이끌어오기에 무명(無明)을‘보(報)를 이끄는 업(業)’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애(愛)와 취(取)가 종자업인 생업(生業)을 일으킨다는 것은 애(愛)와 취(取)가 종자를 남기고 그 종자가 전전해서 내생(來生)의 유(有)가 생겨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대목에서 보면『이장의』번뇌장의 애(愛)와 취(取)는 설일체유부 십이연기에서 유(有)가 생겨나는 것과는 달리 종자가 전전해서 내생의 존재 유(有)가 생겨나, 생업(生業)인 종자업(種子業)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왜『이장의』번뇌장의 애

9) 원효,『이장의』, 한불전, 795b : 顯了門中, 煩惱障能, 略有二種, 謂能發業, 及能結生. 發業之能, 亦有二種, 先發引業, 後發生業. 通而論之, 一切煩惱皆發引業, 亦發生業, 於中別取其最勝者, 無明能發引業, 愛取能發生業.

10) 원효,『이장의』, 한불전, 795b : 三煩惱中, 一能發起引業, 二能發起生業, 故. 此中發引業者, 發現起業. 發生業者, 發種子業, 由能熏發, 先行種子, 令成能生, 轉爲有故.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愛)·취(愛)와 설일체유부의 애(愛)·취(取)는 같은 십이연기임에도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인가?

그것은 『이장의』가 유식을 핵심사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현료문은 유식의 논서인 『유가사지론』을 핵심 경전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유식의 입장에서 십이연기를 논하자면 무명(無明)이 의지를 일으켜 인식을 낳고, 정신적, 육체적 감각인 명색(名色)이 인식 기관으로 화하여 대상을 포착, 애착하여 무명(無明)에서 발한 종자(種子)가 현생의 애착을 훈습하여 다음 종자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무명(無明)의 종자는 애(愛)·취(取)에 의해 현생의 업(業)을 다시 훈습하여 종자로 전전하다 결국 다음 생(生)의 중생인 보(報)로 현행한다. 이처럼 유식의 십이연기에서 종자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종자의 훈습으로 업을 이끌어 다음 생을 맺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식에서 종자는 어떻게 연기하기에 업을 발생시키고 생을 맺게 하는 것인가?

Ⅳ. 식(識)의 새로운 해석과 종자(種子)

유식(唯識)에서 행(行)을 연하여 식(識)이 된다는 것은 행(行)이 식(識)을 훈습(熏習)하거나 식 안에 종자(bīja)를 남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십이연기설이 자아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 설해진 것이기에 굳이 아뢰야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식은 제8아뢰야식을 의미한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인 업(業)과 연기(緣起)는 설일체유부에 이르러 부분의 실유성을 인정하게 되고, 유식에 와서는 이를 다시 되돌리는 일환으로 종자로서의 아뢰야식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십이연기의 개념인 식(識)은 존재는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아뢰야식으로서의 종자로 변모, 초기불교의 가르침인 무아(無我)와 업(業)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뢰야식으로서의 종자(種子)는 어떻게 업(業)으로써 작용하는가? 또한 이 업(業)은 종자로서 어떻게 연기하는가?

제8아뢰야식은 전생 유정이 지은 업(業)으로 인하여 다음 생의 업종자(業種子)로서 함장되어 매순간 폭류로서 흐르다 전변하여 현행하게 된다. 즉 제8아뢰야식은 종자로서 함장되어 있다가 조건을 만나게 되면 전5식과 제8아뢰야식에 의해 현상 세계를 형성해낸다. 이것이 존재론적 전변이다. 제6의식과 제7말나식은 전변하여 제8아뢰야식에 의해 그려낸 현상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데 이것이 인식론적 전변이다. 11)

11) 한자경, 『유식무경』, 예문서원, 2004, 136~146쪽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이러한 아뢰야식으로서 종자는 명언종자(名言種子)와 업종자(業種子)로 나뉘고 명언종자는 다시 전5식의 대상인 현경명언종자(顯境名言種子)와 제6의식의 대상인 표의명언종자(表義名言種子)로 나뉘어 기세간과 법경을 형성한다. 12) 그리고 광의의 명언종자에 포함되지만 현경명언종자나 표의명언종자에는 속하지 않는 아집종자(我執種子)는 식소변으로서의 대상 세계를 아집과 법집으로 분별 사량하고 집착을 일으켜 아집의 근본이 된다. 13) 즉 만법은 아뢰야식이 종자를 매개로 하여 현행과 훈습하여 모든 유정(有情) 각자와 기세간(器世間)이 상호 인과 관계를 이루어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기의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제8아뢰야식에 업(業)으로 작용하는가?

전5식의 대상이 될 현경명언종자는 과거의 전5식 활동에 의해 아뢰야식에 심어진 종자이다. 제6의식의 대상이 될 표의명언종자는 과거 제6의식 활동에 의해 아뢰야식에 심어진 종자이다. 그리고 아집종자는 과거 제7말나식의 집착을 통해 아뢰야식에 훈습된 종자이다. 이처럼 7전식은 그 활동의 흔적을 종자로서 아뢰야식에 남기며, 종자 전체를 유지하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각각의 결과를 낸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뢰야식이 현행과 훈습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뢰야식이 연기하는 과정에서 훈습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훈습의 의미는 무엇이며, 아뢰야식은 어떻게 훈습하기에 함장과 현행을 반복하며 7전식의 전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아뢰야 연기설에 따르면 자아와 세계는 끊임없는 종자(種子)의 현행(現行)과 훈습(熏習)의 관계에 따라 형성된다. 훈습(熏習)이란 아뢰야식에 새로운 종자를 이식시키고, 본래 있는 종자를 생장케 하는 작용이며, 현행(現行)은 종자가 아뢰야식 속에서 찰나 생멸하며, 연(緣)을 만나 생기(生起)하는 것이다. 제8아뢰야식은 모든 인식과 행위의 결과를 종자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상분(相分)과 견분(見分)으로 이분함으로 인하여 자아와 세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제8아뢰야식의 변현과 제6의식·제7말나식의 형성은 제8아뢰야식의 종자생현행(種子生現行)과 제6의식·제7말나식의 현행훈종자(現行熏種子)로 설명할 수 있다. 14) 즉 제8아뢰야식의 종자는 끊임없이 변화 성장하여 다시 새로운 종자가 되고, 이 종자는 잠재식인 아뢰야식이 현행하여 종자가 발아하면 현상 세계가 형성된다. 그 현상 세계를 반연하는 제6의식과 제7말나식의 활동에 의해 다시 종자가 훈습되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 새로운 종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종자가 새롭게 발현되는 것은 전체 폭류의 흐름 속에서 남겨져 있는 종자가 현상 세

12) 한자경,『유식무경』, 예문서원, 2004, 124쪽.
13) 橫山宏一, 묘주 譯,『유식철학』, 경서원, 2004, 100쪽 참조.
14) 橫山宏一, 묘주 譯,『유식철학』, 경서원, 2004, 107~110쪽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는 종자의 자기실현이자 아뢰야식의 외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종자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체로 현실화하는 것을 종자생현행(種子生現行)이라고 한다. 이러한 아뢰야식의 종자는 끊임없이 변화 생장하여 종자생종자(種子生種子)가 되고, 잠재식으로서의 제8아뢰야식이 현행하면 현상 세계가 형성된다. 현상 세계는 그 세계를 반연하는 제6의식과 제7말나식의 활동에 의해 제8아뢰야식에 다시 종자가 훈습되어 우리 마음에 심어져 현행훈종자(現行熏種子)가 된다. 15)

이와 같이 설일체유부 십이연기에서 전적으로 과(果)로 보았던 식(識)은 유식에 와서 제8아뢰야식의 원인이 되는 전생의 종자(種子)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성유식론』에는 또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셋째는 능생지이니, 애(愛), 취(取), 유(有)를 말한다. 가까운 미래의 생(生), 노사(老死)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부의 이숙과에 미혹한 어리석음을 연으로 하여 능히 미래의 존재를 불러오는 모든 업을 일으키며, 직접 미래의 태어남과 늙고 죽음의 단계의 다섯 가지 결과를 일으킬만한 종자를 이끌어 내는 연이 된다. 또한 외부의 증상과에 미혹한 어리석음에 의지하여 경계수를 연으로 하여 탐애를 일으킨다. …애와 취가 합하여 윤택해져서 능히 이끄는 업종자 및 이끌려지는 원인이 전변된 것을 이름하여 유(有)라고 한다. 모두 능히 미래의 존재의 과보가 있기 때문이다.16)

애(愛), 취(取), 유(有)는 다음의 생(生), 노사(老死)를 이끄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능생지(能生支)라고 한다. 애(愛)와 취(取)는 곧 일체의 번뇌로 특히 임종 시의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명언종자(名言種子)에 업종자(業種子)가 관여함으로써 이숙과(異熟果)가 맺어지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임종시의 번뇌가 증상연(增上緣)으로 작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숙과가 맺어지는 데는 명언종자와 업종자 말고 그것을 윤택하게 하는 증상연(增上緣)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有)는 앞에서 말한 행(行)과 식(識) 등의 명언종자가 애(愛)·취(取)에 의해 윤택해져 존재의 양상을 띄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명언종자(名言種子)에 업종자(業種子)와 간접조건이 더해진 이숙과(異熟果)는 어떻게 업(業)으로 작용하여 생을 맺고 중생으로 태어나는가? 『이장의』에서는 결생(結生)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15) 한자경, 『유식무경』, 예문서원, 2004, 154~166 참조.

16) 현장 역, 『성유식론』, 8권(『대정장』 31권), 43c : 三能生支. 謂愛取有. 近生當來生老死故. 謂緣迷內異熟果愚發正能招後有諸業爲緣引發親生當來生老死位五果種已. 復依迷外增上果愚緣境界受發起貪愛…愛取合潤能引業種及所引因轉名爲有俱能近有後有果故.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 정생(正生)을 맺을 때에 또한 2가지가 있으니, 유색계(욕계・색계)에 태어날 경우에는 중유(中有) 때에 맺고, 무색계에서 태어날 경우에는 사유(死有) 때에 맺는다. 17)

생을 맺어 중생으로 태어나는 결생(結生)은 정생(正生)과 방편생(方便生)으로 구분된다. 정생(正生)을 맺는 시기도 두 가지가 있다. 생유(生有)는 색계에서 죽어 사유(死有)에서 중유(中有)를 거쳐 생유(生有)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유색계 정생(正生)에서 생을 맺을 때는 중유(中有)에서 생을 맺는다. 무색계에서는 사유(死有) 시에 생을 맺는다. 그러나 방편생에서는 오직 사유(死有)에서 생을 맺는다.

이를 유식과 연관지어 논하면 제7말나식 내지 제6의식은 염오의 마음이다. 그리하여 무부무기(無覆無記)가 아닌 유부무기(有覆無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중유(中有)에서 거친 번뇌의 전(纏)이 생을 맺는다. 만약 임종 시 제8아뢰야식인 무부무기(無覆無記)의 마음을 지녀 사유(死有)에서 생(生)을 맺는다면 이는 이숙심(異熟心)의 지위로 생을 맺는다.『이장의』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 이 중 어떠한 번뇌가 생(生)을 맺을 수 있는가? 통상으로 말한다면 자신이 처한 곳에서 가지고 있는 일체 번뇌가 모두 생을 맺을 수 있고, 가장 수승한 것을 논한다면 오직 구생(俱生)의 무기인 아애(我愛)로 말미암아 생을 맺어 상속한다. 18)

유부무기(有覆無記)인 일체 번뇌는 통상으로 말하면 모두 결생(結生)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결생을 하는 번뇌는 아애(我愛)이다. 별상(別相)에서 임종시 아애(我愛)는 사유(死有)가 아니라 중유(中有)에서 생을 맺는 번뇌이다. 이 때 아애(我愛)는 대상을 반연하지는 않지만 염오(染汚)의 유부무기(有覆無記)로 자아 자체를 요별하여 차별 경계를 낸다. 자아 자체에 대해 분별하기에 제7말나식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생을 맺는 아애(我愛)는 분별기(分別起) 아애가 아닌 구생기(俱生起)의 무기성(無記性) 아애(我愛)다.『이장의』에서는 자아를 반연하는 아견(我見)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의라는 것은 아뢰야식의 종자로부터 생겨나서 도리어 저 식(아뢰야식)을 반연하며 아치, 아애, 아집・아소집, 아만과 상응한다. 그 아견 중에 2가지 반연이 있으니, '자

17) 원효,『이장의』, 한불전, 796a : 結正生時, 亦有二種, 生有色界, 中有時結, 生無色界, 死有時結, 二結方便生, 唯在死有.

18) 원효,『이장의』, 한불전, 796a : 此中何等煩惱能結生者, 通相而言, 自他所有一切煩惱, 皆能結生, 論最勝者唯, 由俱生無記我愛, 結生相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 신의 의지' (자의지)를 반연하는 것이고, '다른 것의 의지' (타의지)를 반연하는 것이다. 말나에 의해 일으켜진 반연은 오직 첫 번째 반연뿐이고, 의식에는 두 가지 반연이 갖추어져 있다. 자아를 반연하는 견(아견)에는 2가지 일어남이 있으니, 분별기와 임운기(구생기)이다. 말나식에는 후자만 있고, 의식에는 둘 다 구비된다. 19)

아견(我見)은 '나에게 아가 있다'는 견해로 이것은 본래부터 타고나서 저절로 일어나는 구생기(俱生起) 견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식의 사려분별작용을 통해 비로소 형성된 분별기(分別起) 견해일 수도 있다. 제7말나식의 아견(我見)은 구생기(俱生起) 아견(我見)일 뿐이지만, 제6의식의 아견(我見)에는 구생기(俱生起) 아견(我見)과 더불어 의식적 사려분별을 통해 일어나는 분별기(分別起) 아견(我見)도 있다. 여기서 생을 맺는 아견(我見)은 제7말나식과 상응하는 구생(俱生) 아견(我見)이다. 『이장의』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삼계의 생을 맺는 것은 바로 수도에서 끊는 번뇌이고, 총보의 업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견도에서 끊는 번뇌이지만, 서로 좇아서 말한다면 공통으로 일으키고 공통으로 맺는다. 20)

총보(總報)의 업(業)을 일으키는 것은 제6의식이다. 제6의식의 분별기(分別起) 차원의 번뇌는 견도(見道)에서 끊어진다. 수도(修道)에서 끊어지는 번뇌는 제6의식의 구생기(俱生起) 번뇌와 제7말나식의 구생기(俱生起) 번뇌이다. 그만큼 수도(修道)에서 끊어지는 번뇌는 끊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러한 두 번뇌는 모두 아(我)와 관계한다.

총보업(總報業)을 이끄는 분별기 번뇌인 견도소단(見道所斷)번뇌는 무명(無明)이 업(業)을 이끌어 아견(我見)에 의해 발생한다. 별보업(별보業)을 이끄는 구생기(俱生起) 번뇌인 수도소단(修道所斷)번뇌는 현료문의 번뇌장이 발업(發業)할 때, 무명(無明)이 별보인업(別報引業)을 이끌 때, 그리고 현료문의 번뇌장이 결생(結生)할 때 아애(我愛)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번뇌장의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은 아견(我見)·아애(我愛)로 인해 제6의식, 제7말나식과 상응하며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번뇌장의 발업(發業)·결생(結生)은 임종 후 다음 생(生)과 이어지는 3가지 연생문(緣生門) 중 분별애비애연

---

19) 원효, 『이장의』, 한불전, 790b : 意者, 謂從阿賴耶識種子所生, 還緣彼識, 我癡, 我愛, 我我所執, 我慢相應."故. 其我見中, 有二種緣. 一緣自依止, 二緣他依止. 末那所起, 唯有初緣, 意識之中, 具二種緣. 緣自我見, 有二種起, 謂分別起及任運起. 末那有後, 意識具二.

20) 원효, 『이장의』, 한불전, 796c : 由是言之, 結三界生, 正是修道所斷煩惱. 發總報業, 正是見道所斷煩惱, 相從而說, 通發通結.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생문(分別愛非愛緣生門)과 분별수용연생문(分別受用緣生門)과 관계한다. 분별애비애연생문(分別愛非愛緣生門)은 십이연기에서 좋음과 싫음을 분별하여 번뇌장의 업을 일으키고 생을 맺으며, 분별수용연생문(分別受用緣生門)은 제6의식이 6진(塵)에 대해 고락(苦樂)을 분별함으로 인해 번뇌장의 업(業)을 일으키고 생(生)을 맺기 때문이다.『이장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이와 같이 업을 일으키는 것과 생을 맺는 것의 뜻은 세 가지 연생문 중에 애·비애와 수용(受用)의 두 가지 연생문에 있고, 세 가지 훈습 중에 오직 유지(有支)와 아견의 두 가지 훈습문에 있다. 이것이 바로 번뇌장의 공능이다. 21)

3가지 연생문(緣生門) 중 분별자성연생문(分別自性緣生門)은 아뢰야식으로부터 제법(諸法)이 일어나는 것으로 번뇌장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3가지 훈습인 명언(名言)훈습, 아견(我見)훈습, 유지(有支)훈습 중 명언훈습은 아뢰야식의 차원이기에 이 또한 제6의식과 제7말나식과 관계하는 번뇌장과는 상응하지 않는다. 번뇌장은 아견훈습과 유지훈습에 있다. 왜냐하면 아견 훈습은 아집(我執)에 의해 자타 분별을 일으키고, 유지 훈습은 십이연기에서 유(有)로 인해 선악분별을 내는 업종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번뇌장의 발업과 결생은 제8아뢰야식과는 관계하지 않고, 제6의식, 제7말나식과 상응한다. 이는 아견과 아애로 인한 아집(我執)과 제6의식이 호오(好惡)와 고락(苦樂)을 분별하는 분별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소지장의 발업과 결생

원효는『이장의』에서 소지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소지장(所知障)에서 소지란 진소유성(盡所有性)과 여소유성(如所有性)[22]의 두 가지 지혜로 비추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소지라 하고, 장(障)이란 법집(法執)등의 혹

21) 원효,『이장의』, 한불전, 797a : 如是發業結生之義, 三種緣生門中, 在愛非愛及與受用二緣生門, 三種熏習之中, 唯在有分及與我見二熏習門. 是謂煩惱障功能也.

22) 진소유성과 여소유성은 보살이 了知해야 할 十種相 가운데 보인다. 진소유성은 존재하는 범위 안에서의 존재성으로 현상계의 법이 존재하는 한계성이나 차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5온·12처 등을 말한다. 여소유성은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존재성을 말하며 현상계 제법의 생성, 즉 염정법 속에 있는 그대로의 진여법성을 의미한다. 진소유성이 일체의 시간적 공간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여소유성은 진여 자체이다.『해심밀경』, 2권, (『대정장』, 16, 698c)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惑)이 지혜의 성품을 막고 그치게 하여 현관(現觀)[23]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경계의 성품을 덮어 가려서 '관조하는 마음' 을 나타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니, 이러한 뜻 때문에 소지장이라고 한다. [24]

소지장은 우리가 가진 경계를 장애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고, 또는 소지의 지혜를 장애해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소지는 보살이 알아야 할 법이며, 닦아야 하는 것으로 현상계의 일체 차별성을 아는 후득지인 진소유성과 진여의 여여함을 아는 근본무분별지인 여소유성을 가리는 장애를 말한다. 소지장은 존재하는 모든 현상계의 법이 지닌 차별성과 한계성을 가리고, 존재자의 궁극적인 본질을 아는 지혜를 가린다. 이것이 법집(法執)이다.

법집(法執)은 법의 실체에 대해서 법의 자성(自性)이 없음에도 실법(實法)이 있는 것으로 집착한다. 제법(諸法)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나타난 가상(假相)임에도 법집(法執)은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집착한다. 이 거짓된 현상은 연(緣)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이장의』에서는 상(相)을 취해 분별하는 것은 진여(眞如)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법집(法執)을 또한 무명(無明)이라 한다. [25]

법공에 도달하지 못해 분별하여 상(相)을 취하는 것을 무명이라 하고 법집이라 이름한다.[26]

아집(我執)이 무아(無我)를 인정하지 못하고 현상 세계의 존재가 실재한다고 생각하여 집착하는 것이라면, 법집(法執)은 각각의 존재가 오온(五蘊)의 화합물일 뿐이라는 인무아(人無我)를 인정하면서도 오온(五蘊)의 각 요소는 실유(實有)한다고 주장한다. 즉 법집(法執)은 일체(一切)가 무상(無常)과 공(空)인 연기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상화하고, 실체화하여 세상이라 여긴다. 이러한 법집에 의해서 우리는 일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집을 일으키는 소지장의 업(業)은 어떻게 생하고 어떻게 연기하며 어떻게 생을 맺는가? 『이장의』에서는 소지장의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에 대해 다음과

23) 현관은 abhisamaya의 번역으로 자기 마음의 본성을 바르게 살펴 직접 명료하게 관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은 일체 만법의 주체로 마음을 관조하는 것은 곧 일체법을 보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보는 것은 理와 事를 관찰하는 것 모두를 말한다. 『성유식론』, (『대장정』, 31, 50c) 참조.

24) 원효, 『이장의』, 한불전 789c : 所知障者, 盡所有性如所有性, 二智所照, 故名所知, 法執等惑, 遮止智性, 不成現觀, 覆蔽境性, 不現觀心, 由是義故, 名所知障.

25) 원효, 『이장의』, 한불전, 791b : 取相分別, 卽不了達無相眞如, 故名法執亦名無明.

26) 원효, 『이장의』, 한불전 792b : 未達法空, 分別取相, 說名無明, 亦名法執.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같이 언급한다.

> 소지장은 삼계 중에 발업과 결생의 공능이 없으니, 4제의 인공의 리(理)에 미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별도로 2가지 공능이 있으니, 무엇이 2가지인가? 첫째는 모든 법의 자성차별을 분별하여 능히 18계를 훈성(熏成)하니, 이로 인해 모든 법의 체상을 변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연의 공능이다. 3가지 연생 중에서 자성연생이고, 3가지 훈습 중에서 언설훈습이다. 두 번째는 이 소지장이 자와 타, 위와 순 등의 상을 분별하여, 능히 견・만・탐・진 등의 사(事)를 내니, 이것이 증상연의 공능이다. 27)소지장은 삼계 중에 발업과 결생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소지장은 법공(法空)의 리(理)에 미혹한 번뇌로 인공(人空)의 리(理)에 미혹한 번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지장은 별도의 두 가지 공능(功能)이 있다. 소지장은 모든 법의 자성(自性) 차별을 분별하여 18계를 훈습하여 이로 인해 모든 법(法)의 체상(體相)을 변생(變生)한다. 이것은 인연(因緣)의 공능(功能)이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소지장은 소지장의 인(因)이 연(緣)을 만나 나와 남, 싫음과 좋음을 분별하여 자기만의 고집과 아만심, 탐욕과 성냄을 내게 한다. 이로 인해 무상의 지혜인 근본지를 막고 경계를 가리는 법집(法執)을 이루어 모든 법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지장이 공능(功能)만 있을 뿐 삼계 중에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소지장은 어떻게 다음 생(生)과 이어서 연기하는가?

소지장은 법집(法執)과 관계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3가지 연생문(緣生門)중 분별자성연생문(分別自性緣生門)과 관계한다. 이 문은 모든 법의 자성(自性)을 분별하여 18계를 훈성하여 생을 맺는다. 또한 소지장은 3가지 훈습 중 명언(名言)훈습과 관계한다. 왜냐하면 명언종자(名言種子)가 제법자성차별을 분별하여 18계를 훈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지장은 법의 자성을 분별하고 18계를 훈성하는 법집(法執)과 관계되므로 제8아뢰야식과 제7말나식과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생은 무엇 때문에 소지장을 일으키는가? 또한 법집은 제8아뢰야식·제7말나식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아뢰야식은 제6의식이나 제7말나식의 심층에 존재하면서 그들 식이 남긴 흔적을 종자(種字)로서 간직한다. 이 종자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순간 바뀌어 흘러 7전식(七轉識)으로 전변(轉變)한다. 7전식은 전5식, 제6의식, 제7말나식을 말한

27) 원효,『이장의』, 한불전, 797b : 所知障者, 於三界中, 無有發業, 結生功能, 非迷四諦, 人空理故. 然此別有二種功能, 何等爲二. 一者分別, 諸法自性差別故, 能熏成十八界, 由是辨生, 諸法體相, 此是因緣之功能也. 三種緣生中, 自性緣生, 三種熏習中, 言說熏習. 二者, 此所知障, 分別自他, 違順等相, 能生見慢貪瞋等事, 此是增上緣功能也.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다. 전5식은 신체적 5관을 통한 감각 기관에 해당하는 5근(根)이 5경(境)인 색성향미촉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한다. 전5식에서 받아들인 감각적 인식을 정리 종합하여 분별하는 식은 제6의식이다. 왜냐하면 인식은 감각 기관으로써만 가능하지 않고, 대상에 대한 의식 활동이 일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식(唯識)에서 존재하는 일체(一切)는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는 것, 주관과 객관, 자아와 세계, 육근(六根)과 육경(六境)으로 분류되어 12처(處), 18계(界)가 된다. 이는 중생업으로 인해 아뢰야식이 식전변(識轉變)하여 발생한 것이다. 주객미분의 심(心)인 심층의 제8아뢰야식은 종자의 상태로 우주의 정보를 담은 채 아뢰야식 안에 에너지로 함장되어 있다가 인연이 갖춰지면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으로 이원화하여 현상세계를 만든다.

견분(見分)은 보는 식(識)이고, 상분(相分)은 보여지는 식(識)으로 아뢰야식의 상분(相分)은 아뢰야식 내 종자 에너지에 의해 형성되는 현상 세계 전체를 말하고, 아뢰야식의 견분(見分)은 아뢰야식의 상분(相分)을 보는 활동인 료(了)를 수행한다. 료(了)는 아뢰야식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심층 마음의 활동으로 이 심층 마음인 아뢰야식의 전변(轉變)으로 말나식과 의식 또한 활동한다. 이 전변(轉變)으로 인하여 아집(我執)·법집(法執)을 일으키는 제7말나식이 되는 것이다. [28] 『이장의』에는 7전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번뇌장 자체는 아뢰야식과 상응하지 않고 오직 7가지 전식과만 함께 일어난다. 그 중 애와 무명은 7가지 식에 통하고, 만(慢)은 2식에 통하며, 진(瞋)은 단지 제7말나식에는 통하지 않고, 의(疑)와 4견은 오직 의식에만 있고, 살가야견은 의(意)와 의식(意識)에 있다. [29]

번뇌장은 불선(不善) 또는 유부무기(有覆無記)의 염오성(染汚性)이므로 기본적으로 무부무기(無覆無記)인 아뢰야식과 상응하지 않고 오직 7전식과만 상응한다. 특히 번뇌는 기본적으로 의식에 현행하여 작동하는 것이므로 일체 번뇌는 제6의식과 상응한다. 그러나 소지장은 아뢰야식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번뇌장 중에서 제7말나식과도 통하는 것은 탐(貪), 치(癡), 만(慢), 아견(我見)이다. 이것이 바로 말나의 4번뇌 아견(我見), 아치(我癡), 아애(我愛), 아만(我慢)이다. [30]

---

28) 한자경, 『유식무경』, 예문서원, 2004, 105~146 참조.

29) 원효, 『이장의』, 한불전, 790b : 煩惱障體, 不與阿賴識相應, 唯共七種轉識俱起. 於中愛與無明, 通七種識, 慢通二識, 瞋唯不通第七末那, 疑及四見唯在意識, 薩迦耶見在意意識.

30) 『성유식론』에는 말나식을 사량능변식·말나·제7·제7식·의·염오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식삼십송』에서는 말나식에 대해 네 가지 번뇌인 아치·아견·아만·아애와 함께 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말나의 4번뇌는 번뇌장에도 관여하지만 소지장과도 깊숙이 관여한다. 왜냐하면 이 제7말나식이 있음으로 찰나 무상적인 현상을 자기 자성을 가진 고정적이고 항상적인 법(法)으로 실체화함으로써 의식으로 하여금 그것을 그것으로 요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제6의식이 대상을 인식할 때 제7말나식은 제6의식이 오감에 주어지는 감각 내용들을 대상화하여 실체화할 때 고정적인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게 한다. 대상을 인식하는 의(意)자체의 자기의식 또는 자기 인식인 제7말나식은 의식이 오감에 주어지는 감각 내용들을 대상화하여 실체화하여 고정적이고 항상적인 자기 자성을 가진다. 그래야만 제6의식이 대상 분별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장의』에서 번뇌장은 주로 아집(我執)을 일으키는 제6의식과 제7말나식의 집착으로 일어나는 장애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장은 제7말나식의 집착으로 인한 법집(法執)과 관계하지만 제8아뢰야식의 영역에도 관여한다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의 자성 차별을 분별하여 18계를 훈성하고, 이로 인해 모든 법의 체상을 왜곡하여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Ⅵ. 맺음말

중생인 유정(有情)과 기세간(器世間)의 발생에 대해 원효『이장의』현료문에서는 십이연기와 아뢰아 연기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료문의 발업과 결생은 십이연기에서 무명(無明)과 애(愛)·취(取)와 관련하며 유식으로 보았을 때 이는 제7말나식의 속성인 아견(我見), 아애(我愛)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장의』에서 애(愛)와 취(取)는 설일체유부의 십이연기와는 달리 종자(種子)가 전전해서 내생(來生)의 유(有)가 생겨나게 되어, 생업(生業)인 종자업을 일으킨다. 유식의 십이 연기는 앞의 9지가 모두 이 유(有)에 집약되어 있다. 앞의 10지는 원인이고, 다음의 생(生)과 노사(老死)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앞의 10지는 종자이고, 뒤의 생(生)과 노사(老死)는 종자가 현행한 것이다. 이 현행은 또한 당연히 종자를 훈습한다. 그렇게 해서 원인이 되는 10지가 다시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 10지(支)는 함께 생겨나고 소멸하면서 훈습을 통해 종자를 낳기 때문에 세(世)를 달리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유식에서의 십이연기에 대

고 언급한다. 현장 譯,『성유식론』, (『대정장』권 31, 19b) : 後應辯思量能變識相. 是識聖教別名末那. 恒審思量勝餘識故. 此名何異第六意識. 此持業釋. 如藏識名. 識卽意故. 彼依主釋. 如眼識等. 識異意故. 然諸聖教恐此濫彼故於第七但立意名.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한 이해는 업종자(業種子)와 명언종자(名言種子)에 의해 앞의 이숙(異熟)이 사라지면 다음의 이숙(異熟)이 생겨난다고 하는 종자(種子)-아뢰야식(阿賴耶識)이론을 십이연기설과 결합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유식에서는 식(識) 속에 존재하는 종자가 현재세에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무명(無明)에서 유(有)에 이르는 앞의 10지는 원인(原因)이며, 생(生)노사(老死)의 뒤의 2지는 결과(結果)가 된다. 유식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식(識)의 활동에 의해 나타난 식전변의 결과이다. 때문에 유식에서는 외부 대상을 인정하지 않아 과거-현재 혹은 현재-과거의 이세일중인과(二世一重因果)가 된다.

『이장의』에서 애(愛)와 취(取)가 종자를 남기고(現行熏種子) 그 종자가 능히 생하고 전전해서(種子生種子) 결국 다음 생의 중생(報)이 있게 되기에(種子生現行), 애·취는 '보(報)를 생기게 하는 업(業)' 생업(生業)을 일으킨다고 본다. 결국 『이장의』 현료문의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을 일으키는 것은 애(愛)와 취(取)로 이를 유식으로 말하자면 제7말나식과 관련된 아견(我見)과 아애(我愛)라 할 수 있다.

아견(我見)은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망견(妄見)으로 이는 무아(無我)의 이치를 망각한 것이다. 이 아견(我見)은 자아의식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식에서 말하는 제7말나식의 공능이라 할 수 있다. 아애(我愛)또한 제7말나식의 공능으로 마음 속 깊이 집착한 자아에 대하여 애착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애(我愛)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료문은 항상 제7말나식의 작용인 아견(我見)과 아애(我愛)와 상응하여 일어나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과 자아에 대한 집착심을 토대로 발업(發業), 연기하여 결생(結生)한다.

존재와 자아에 대한 제7말나식의 작용은 번뇌와 업(業)을 낳아 중생이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하게 하며 자(自)와 타(他)를 구별하게 한다. 특히 현대에 와서 주체성의 확립을 외치며 자아의 강화로 이어지는 경향은 결국 번뇌의 강화로 이어져 이기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존재와 인식에 대한 붓다의 해법은 바로 연기를 통해 자아의 실체 없음을 깨닫는 것, 우리가 나라고 혹은 나의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결국 제7말나식의 집착적 작용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붓다의 지혜에 더해 원효는 『이장의』에서 십이연기와 아뢰아연기를 중심으로 한 중생업의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존재와 인식, 번뇌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 유식을 기반으로 해명하고 있다. 연기(緣起)와 업(業)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유식적 접근은 의타기(依他起)기를 변계소집(遍計所執)이 아니라 의타기(依他起)로 아는 현상 긍정의 유식 정신과 상통하고, 원효의 대승 정신과도 만난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이장의』현료문에서 바라보는 발업(發業)과 결생(結生)은 유식의 경전을 기반으로 이세일중인과(二世一重因果)를 드러내며 아뢰아연기를 바탕으로 식(識) 전변한다. 또한『이장의』는 내용이나 분량면에서 은밀문보다 현료문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효의 저술 중 유식(唯識) 계통의 경론에 대한 연구서가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원효 사상의 핵심은 유식(唯識)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식을 기본으로 현료문을 강조한 원효『이장의』는 대승으로 나아가기 위해 원효의 이론적 밑작업이라 하겠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참고 문헌

窺基,『成唯識論 述記』,『大正新修大藏經』, 卷 43.
彌勒 說, 玄奘 譯,,『瑜伽師地論』,『大正新修大藏經』, 卷30.
元曉,『大乘起信論疏』,『大乘起信論 別記』,『韓國佛教典書 』, 卷1.
____,『金剛三昧經論』,『韓國佛教典書 1』, 卷1.
____,『二障義』,『韓國佛教典書1』, 卷1.
玄奘 譯,『解心密經』,『大正新修大藏經』, 卷16.
護法 等 造, 玄奘 譯,,『性唯識論』,『大正新修大藏經』, 卷31.
각묵・대림 譯,『아비담마 길라잡이 1,2」, 초기불전연구원, 2016.
각묵,『초기불교의 이해」, 초기불전연구원
김명우,『유식삼십송과 유식불교』, 예문서원, 2009.
김묘주,『유식철학』, 경서원, 1997.
은정희,『이장의』, 소명출판사, 2005.
한자경,『유식무경』, 예문서원, 2000.
해공 유진,『번뇌장・소지장의 연구』, 경서원, 2002.
橫超慧日・松村法文,『新羅 元曉撰 二障義』, 京都:平樂寺書店, 1979.
기덕철,「煩惱障과 所知障에 對한 小考」,『석림』21, 동국대학교 석림회, 1987.
김성철,「원효의 제7말나식관」,『불교학연구』42호, 불교학연구회, 2015.
김수정,「원효의『이장의』성립 배경에 대한 일 고찰」,『불교연구』39집, 한국불교연구원, 2013.
_____,「원효의 번뇌론 체계와 일승적 해명」,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박해당,「元曉의 障碍 理論」,『태동고전연구』8, 태동고전연구소, 1992.
석길암,「원효『이장의』의 사상사적 제고」,『한국불교학』28, 한국불교학회, 2001.
안성두,「원효의『이장의』현료문에 나타난 해석상의 특징」,『불교연구』47, 불교학회, 2017
_____,『瑜伽師地論』의 緣起說: 識支를 중심으로」,『불교학연구』 제 5호(2002).
오형근,「元曉의『二障義』에 대한 考察」,『신라문화』5,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8.
유승주,「元曉의 唯識思想 硏究」,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2.
은정희,「원효의 이장의 연구」, 원효학 연구 8,『원효학연구회』, 2003.
이평래,「煩惱所知二障과 人法二無我의 基礎的 硏究」,『철학연구』34호, 1982.
최연식,「元曉『二障義』隱密門의 사상적 특징」,『東岳美術史學』19권, 동악 미술사학회, 2016.
橫超慧日,「元曉の二障義にフいて」,『東方學報』第 11輯, 東京, 1940.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Abstract]

A Study on Karma and Pratityasamutpāda in the Exoteric Level of Wonhyo's『Ijangŭi』

Ko, Eun-Jin (Jeju National Univ.) *

『Ijangŭi』 being the work of Wonhyo studying kleśa(煩惱), it has attracted significant research interest since its old manuscript was discovered in Japan in 1949. While the key thought of『Ijangŭi』having been debated, I consider it as the mind only in this paper.

Karma and twelve types of pratityasamutpāda are the key concepts of the early Buddhism. However, the meaning and structure of pratityasamutpāda have to face reinterpretations in the later age. That is, samseyangchungingwa (三世兩中因果) of twelve types of pratityasamutpāda argued in the early Buddhism and seolilcheyubu(說一切有部) transforms into iseilchungingwa(二世一重因果) in the mind only as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the mind.

In the exoteric level of Wonhyo's『Ijangŭi』, the occurance of karma and the closure of live are discussed drawing upon Yogacarabhumi Sastra (Discourse on the Stages of Yogic Practice). That is, avidya, love, obtaining, these being the subject of twelve types of pratityasamutpāda surface drawing upon wise saying and basic characters and are born into next life (潔生) leading to the karma in next life. Drawing upon the theory of seeds of the mind only, such explanation of 『Ijangŭi』 discusses that the hindrances of passion and delusion (煩惱障) relates to the attachment to self (我執); and the hindrance of worldly knowledge (所知障) to the attachment to things (法執).

The hindrance of passion and delusion (煩惱障) is kleśa(煩惱) of obsession that causes from the ignorance of the emptiness to self (我空) and forms the attachment to self (我執) and interrupts reaching the nirvana. The hindrance of worldly knowledge (所知障) is kleśa (煩惱) of obsession that comes from the ignorance of the emptiness of phenomenon(法空); and creates the attachment to things (法執) and blocks bodhi.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ind only, while the hindrances of passion and delusion (煩惱障) relates to the action of the sixth consciousness and Manas, worldly knowledge (所知障) relates to Manas and Ālayavijñna(我賴耶識). After all, the role of Ālayavijñna(我賴耶識) is hugely important.

Wonhyo is a Buddhist monk who opened a new path for Korean Mahayana Buddhism and maintained practicing it. His work『Ijangŭi』not only focuses upon the exoteric level that reveals the phenomenon but also draws upon the mind only that values the being. In particular, the explanation of Wonhyo for the occurance of karma that reflects the formation of existence and the closure of life reveals the major idea of Yogacara that self

* Lecturer, Dept of Philosophy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

and the world are the siksobyoun of the Ālayavijñna(我賴耶識) and knowing discrimination of wisdom (依他起) as such is non-discriminative wisdom (圓成實性). Considering that Wonhyo being the monk of Mahayana accentuating caring mind for humankind, the representative key idea of Wonhyo putting a significant value on the exoteric level lies in the mind only.

Key Categories : Buddhist Philosophy, The Mind Only Science(唯識學), Mahayana Buddhism
Key words : Wonhyo, 「Ijangŭi」, Pratityasamutpāda, mind only, Mahayana

투고일 : 2021년 09월 20일
심사일 : 2021년 10월 15일
게재결정일 : 2021년 10월 25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11/24 13:13(KST)